

데이터리더십으로 일군

10년의 현장기록

“**當選**은 선택입니다”

큰 판에 더 강한 회사
승리의 길을 아는 회사

〈리서치뷰〉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여의도 프론티어 리서치뷰

“데이터는 같아도, 읽는 눈이 다르다”

선거조사 대참사

2010년에 이은 2016년 총선
대다수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새누리당 150~180석을 전망했습니다.
유일하게 <리서치뷰>만 새누리당 · 더민주 120석 내외
국민의당 35석 내외를 예측했습니다.
같은 데이터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 총선] <리서치뷰> 실전사례

D-37

차 대통령 지지율 급락 속에 시작된 20대 총선
차 대통령 지지율 18대 대선 직전보다 무려 12%p 급락

D-17

투표의향총 “새누리(34.3%) vs 더민주(33.9%)”, 0.4%p차 초접전

D-10

투표의향총 “새누리(32.8%) vs 더민주(32.7%)”, 0.1%p차 대혼전

D-5

수도권 “더민주 최초로 1위 탈환”, 국민의당 정당지지도 최고치 경신

D-1

선거여론조사 “막상 뚜껑 열면 판세 뒤집혀”
20대 총선 선거조사 ‘輿편향’ 클 것

D-day

“전국 · 수도권 · 호남권” 예측조사 발표
새누리당 · 더민주 120석 내외, 국민의당 35석 내외

정확한 데이터리더십으로 일군 역전신화

“정확한 분석이 승리의 전략을 만든다”

역전신화 실전사례

천당보다 좋다는 강남 · 분당의 벽을 넘어
이번의 주인공이 된 **전현희 · 김병관**

12명의 쟁쟁한 당내 경쟁자를 물리치고
본선에서 재선 현역을 꺾은 **엄용수**

호남 최초 진보당 간판으로
민주당 3선 중진을 물리친 **강동원**

대통령급 지명도를 갖춘 엄기영을 넘어
재선거도를 달리고 있는 **최문순**

국내 최초 통합컨설팅으로
서울 **공정택** · 경기 **김상곤** 교육감을 나란히 당선시킨

리서치뷰 저력은
데이터리더십에서 나옵니다!

리서치뷰 승리의 이력서

Since - 2006

-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종합컨설팅
- 2007년 제17대 대선 정동영 경선조사 총괄
- 2008년 제18대 총선 종합컨설팅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종합컨설팅
-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종합컨설팅
-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 종합컨설팅
- 2011년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자 종합컨설팅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경선전략 & 전략조사
- 2012년 제19대 총선 종합컨설팅
최대 이변 전북 남원·순창 통합진보당 강동원 당선자 등
-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 종합컨설팅
-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종합컨설팅
- 2016년 제20대 총선 종합컨설팅
서울 강남(을) 전현희 당선자
경기 분당(갑) 김병관 당선자
밀양·의령·함안·창녕 엄용수 당선자 등
- 2016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추미애 당대표 당선자 전략조사 및 전략메시지 기획
- 2017년 제19대 대선 추이조사 & 선거일 예측조사 공표

신뢰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

국내 유일 예측조사 적중률 90%

리서치뷰 1위 예측치		최종 득표율	
2009. 10. 충북 중부4군 국회의원보궐	38.3	2013. 10.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보궐	63.1
민주당 정범구	41.9	한나라당 서형원	62.7
2011. 04. 강원도지사보궐	49.9	2014. 06. 서울시장선거	51.0
민주당 최문순	51.1	민주당 박원순	56.1
2011. 10. 서울시장보궐	55.5	2014. 06. 경기도지사선거	50.2
무소속 박원순	53.4	새누리당 남경필	50.4
2011. 10. 부산 동구청장보궐	49.8	2014. 06. 광주시장선거	50.5
한나라당 정영석	51.1	민주당 윤정현	57.9
2011. 10. 충남 서산시장보궐	32.4	2015. 04. 광주서구(을) 국회의원보궐	46.3
한나라당 이완섭	28.2	무소속 한정배	52.4
2011. 10. 경남 함양시장보궐	45.2	2016. 04. 20대 총선 전국 지역구득표율	37.2
한나라당 최완석	37.7	새누리당	38.3
2012. 04. 19대 총선 정당득표율	41.1	2016. 04. 20대 총선 전국 정당득표율	33.6
새누리당	42.8	새누리당	33.5
2012. 04. 19대 총선 부산 사상구	53.8	2016. 04. 20대 총선 수도권 지역구득표율	40.3
민주당 문재인	55.0	더불어민주당	42.0
2012. 04. 19대 총선 전북 남원순창	48.5	2016. 04. 20대 총선 호남권 지역구득표율	43.8
통합진보당 강동원	49.4	국민의당	46.6

제20대 총선 강남대첩 전현희 당선자

편견을 넘어 20년 만에 강남대첩 기적을 일구다

“용기는 가상한데..., 설마?”

모두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할 때
모두 야당세 강한 강북을 권할 때
<리서치뷰>는 오직 데이터리더십에 입각한 판세분석과
2016년을 관통할 시대정신을 읽으며 1년 전부터 강남대첩을 준비합니다.

강남도 땀 흘리는 국회의원 한 번 가져봅시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강남
그래서 강남 국회의원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또 뽑아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젠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강남의 쉽지 않은 선택에 감사해서라도 땀 뻘뻘 흘리며 일할 국회의원 한 번 만들어봅시다.

“벽을 힘껏 밀면 門이 됩니다”

누구나 강남은 높고 두꺼운 벽이라 생각합니다.
강남에서 야당후보가 당선될 턱이 없을 거라 합니다.
하지만 전현희는 벽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벽을 힘껏 밀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가와 함께 벽을 밀니다.
마침내 철옹성 같던 벽이 열리고 門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부르겠지만 우리는 <데이터리더십>의 승리라 부릅니다.

제20대 총선 분당대첩 김병관 당선자

정치는 결단,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가른다

“데이터는 같아도 읽는 눈이 다르다”

벤처신화 · 인재영입 2호 · 비상대책위원 김병관
호남지역 공천참사 후폭풍이 거세던 설 직후 녹색돌풍 저지를 위해
전북 출마가 검토될 때 <리서치뷰>는 분당출마를 적극 제안합니다.
두 달 후 분당대첩 기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제품 김병관”

벤처신화 김병관이 분당에서 새로운 신화에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벤처정신으로 변화, 미래, 희망의 길을 열겠습니다.
옳은 길을 앞에 두고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김병관을 쓰십시오”

김병관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스물일곱에 벤처기업을 창업했습니다.
독창적인 기술 가치를 인정받아
네이버의 성장엔진이 되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웹젠에 투자하여 대한민국 성공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분당이 기다려온 사람 / 당신이 기다려온 정치
분당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제20대 총선 경남대첩 엄용수 당선자

버거운 경쟁자들, 또렷한 지역구도 황소 같은 독심으로 12:1의 벽을 넘다

“선거는 시스템”

현직 재선, 전직 의원, 보건복지부 차관
총리 비서실장 등 12명의 막강한 경쟁자들
서울 면적 3.7배에 달하는 광활한 선거구
<리서치뷰>는 단단한 시스템과 한 템포 빠른 캠페인으로 선거를 주도합니다.
극한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결선까지 가는 치열한 경선을 뚫고, 마침내 재선 현역도 꺾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엄용수”

지치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
당신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익에 따라 시류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 엄용수의 진심정치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미래에 걸어보시겠습니까?”

같은 실패를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엄용수가 있습니다.
17년간 지역에서 봉사하고 8년간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밀양창녕의 사정에 그 누구보다 밝은 사람입니다.
똑똑합니다. 일 하나는 똑 소리 납니다.
중앙당 네트워크도 탄탄합니다.
우리지역 숙원사업은 중앙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안겨준 과거의 힘이 아니라 희망과 꿈을 함께 키울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2011년 4월 강원대첩 최문순 당선자

국내 최초 RDD 데이터로 大역전극을 쓴 大서사시

“엄기영 · 최문순 6.9%p차”

대통령급 인지도를 갖춘 엄기영과 무명의 문순씨가
강원도로 출동합니다.
D-60일,
국내 최초로 <리서치뷰>가 RDD 여론조사 결과를 전격 발표합니다.
20%p 내외 격차로 엄기영이 압도한다는 데이터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언론과 정치권도 깜짝 놀라 RDD에 주목합니다.
RDD 파괴력은 단숨에 강원도를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시켰습니다.

“강원대첩 승리의 주역은 女心 이었다”

판을 제대로 읽어야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온다!
<리서치뷰>의 일관된 철학입니다.
마지막 발표된 타 기관 데이터는 모두 엄기영 후보 압승을 전망했지만,
<리서치뷰> 데이터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재·보선을 집어삼킨 일본 대지진이 삼척원전 이슈에 기름을 부으며
모성본능의 역동적인 표심이 20여 차례 전략조사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선거일 투표마감 직후 <리서치뷰>는 예측조사를 전격 발표합니다.
“최문순(49.9%) vs 엄기영(47.7%)”, 최문순 2.2%p 앞서
최종 개표결과는 “최문순(51.1%) vs 엄기영(46.6%)”
최문순 후보가 4.5%p차 역전승을 거두며 60일간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2014년 6월 Again 강원대첩 최문순 당선자

1.6%p, 반집승부 가슴을 쓸어내린 문순c

“수성전이 아니라 공성전을 펼쳐야 합니다”

선거일을 한 달 앞둔 어린이날
<리서치뷰>는 춘천으로 달려갑니다.

당시 발표되던 여론조사는
최문순 지사가 여유 있게 앞선다는
데이터만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지사님!
저희 데이터는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수성전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성전을 펼쳐야 합니다”



“판을 제대로 읽어야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온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선거 다음 날
최문순 당선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6%p!
앞치락뒤치락 밤을 꼬박 새우고 동들 무렵에야 당락이 결정된
그야말로 피 말리는 접전이었습니다.
재선의 문턱에서 가슴을 쓸어내린 문순c의 놀란 표정이 떠오릅니다.

<리서치뷰>는 오늘도 외칩니다.
“판을 제대로 읽어야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온다”



2011년 10월 서울대청 박원순 당선자

헌정사상 초유의 무소속 서울시장 당선

“백만 대군을 거느린 제1야당을 꺾다”

후보단일화 경선을 하루 앞둔
2011년 10월 2일 오후 <리서치뷰>는 박원순 캠프로
마지막 예측보고서를 전달합니다.

“박원순(51.57%) vs 박영선(45.29%)”
박원순 후보 6.28%p 앞설 것

최종 경선결과는
“박원순(52.15%) vs 박영선(45.57%)”
박원순 후보가 6.58%p차로 승리합니다.

수도서울에 1백만 당원과 48명의 야전사령관을 거느린 제1야당을 꺾었습니다.
데이터리더십 중심의 전략이 일궈낸 쾌거였습니다.

“협찬인생 한 방에 뒤집힌 판세 MB심판으로 프레임을 바꿔라”

선거는 상대가 있는 시소게임입니다.
‘따 놓은 당상’처럼 보이던 선거판이 협찬인생 한 방에 무너집니다.
야권총이 많은 부재자투표에서
나경원 후보가 48개 전 지역구에서 무려 11.7%p 압승을 거둡니다.

만약 캠프가
YTN(10. 19) “박원순(44.3%) vs 나경원(39.3%)”
조선(10. 19) “박원순(43.5%) vs 나경원(41.4%)” 등의 데이터를
더 신뢰했다면 당선자가 바뀌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리서치뷰>는 긴급 제안합니다.

“이미지 캠페인을 지양하고,
MB심판 프레임으로 전면전을 펼쳐야 한다”



2009년 4월 경기교육감 김상곤 당선자

2년 후 지방선거를 뒤흔들 첫 진보교육감 탄생



“이명박 특권교육 김상곤이 확 바꾸겠습니다”

단독으로 치러지는 주민직선 교육감선거
교육감이 될 하지도 잘 모르던 시절
언론의 무관심과 10%대 저조한 투표율
선거기간 1개월, 대한민국 축소판 경기도
낮은 인지도와 보·혁 후보군 난립, 정당개입 불가
약 38억의 막대한 선거자금

〈리서치뷰〉는 김상곤 후보 스토리를 살핀 후
회사의 명운이 걸린 ‘도전’에 나섭니다.

그리고 끈질긴 설득으로 관찰해 냅니다.
이 모든 악조건을 돌파할 유일한 길은

“이명박을 타격해서
현 교육감을 잡아야 한다”

“학교 갈 땐 즐겁게 집에 올 땐 신나게”

보·혁 대결구도가 치열한 선거지만 교육감 선거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후보의 이미지가 정치적 색채만 강조할 순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31개 지자체로 이뤄진 도농복합 선거구입니다.
도심권은 젊은 층이 많지만 외곽지역은 장년층이 압도적입니다.

〈리서치뷰〉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투-트랙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MB심판 정서가 강한 도심권에는
이명박 특권교육을 정면으로 타격하고,
농촌지역엔 손자·손녀를 떠올리도록 감성적인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학교 갈 땐 즐겁게 집에 올 땐 신나게”

7.30 서울시 교육감 후보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하겠습니다.

미래와 공감하는 교육감-

1 공정택

2008년 7월 서울교육감 공정택 당선자

수도서울 첫 주민직선 보수교육감 탄생



“오직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하겠습니다”

2008년 7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이 연일 광화문 광장에서 활활 타오를 때
언론과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첫 주민직선 교육감선거의 본질은 실종되고
보수·진보 사활이 걸린 전쟁터로 변질됩니다.

보수의 아이콘으로 낙인찍힌 공정택 교육감
활활 타오르는 촛불과 진보진영의 총 공세를 뚫고
1.8%p차, 수도권 교육감에 당선됩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
2010년 서울교육감 출마자 핵심참모들이 <리서치뷰>를 찾아옵니다.

“물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권을 줄테니 공정택 교육감처럼 도맡아다오”

“정책이슈로 학부모를 공략하라”

광우병 소고기 <PD수첩> 파문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흥흥한 민심
진보진영의 십자포화로
졸지에 보수의 아이콘으로 낙인찍힌 공정택
“이 선거는 정책이슈로
보수심판 프레임을 희석하고 전략적 타깃층인 학부모를 공략해야 합니다”
<리서치뷰>는
교육감선거 최초로 100페이지에 달하는
정책공약집 ‘共感’을 발간하며 정책선거를 주도합니다.



제19대 총선 전북대청 강동원 당선자

호남에서 진보당 간판으로 민주당 3선 중진을 꺾은 강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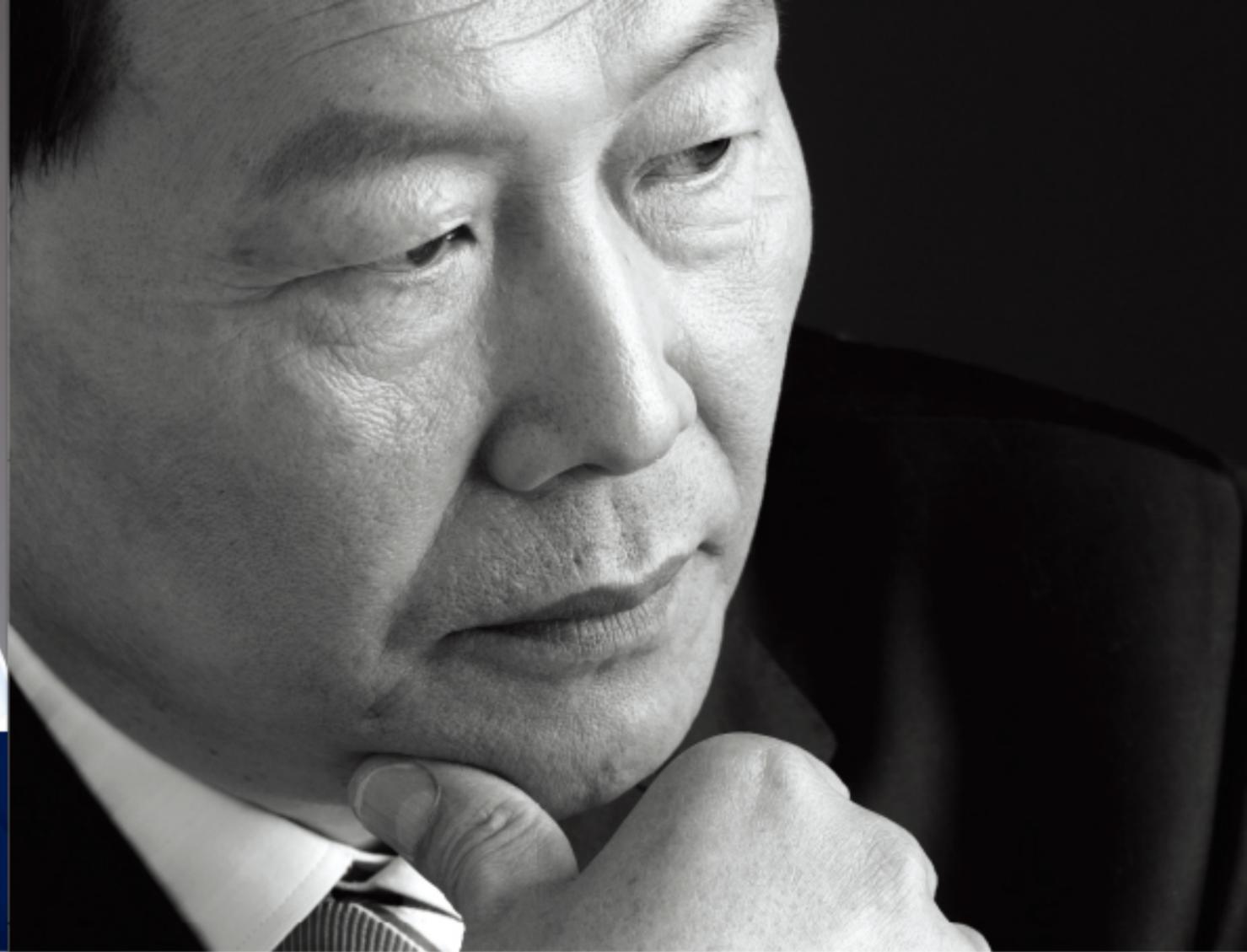
“내 운명을 맡길 테니 ○○○을 잡아주세요”

19대 총선을 140여일 앞둔
2011년 11월 어느 날 아침
불쑥 그가 찾아옵니다.

일면식도 없었던 그는 작정한 듯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가노라며
총총히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농촌지역
무소속도 아닌 통합진보당
정당지지도 '58% vs 8%'

큰 부담과 고민 속에
첫 전략조사 데이터를 살핀 후
“OK! 잡을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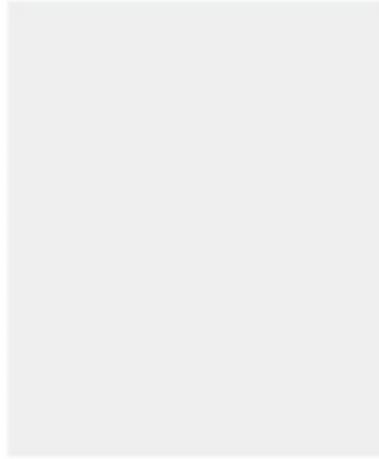


“가장 궁핍했지만 가장 정의로웠던 사람”

한 때 강아지도 돈 봉투 물고 다닌다던 지방 선거판
20대 당선자 중 재산등록 골짜기
그야말로 맨발에 청춘 강동원 후보

선거자금도 겨우 편드로 조달하며
법정운동원도 못 채울 정도로 궁핍했지만
10여 차례 전략조사를 통한 데이터리더십으로
원내대표 출신 3선 현역을 기어이 잡고야 말았습니다.

선거일 투표마감 직후
출구조사보다 정확한 예측조사를 토대로
“강동원 당선확실!” 희소식을 전하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강동원 후보의 떨리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정말 고맙소!”



또다른 영광의 얼굴들

지방선거

2010년 노원구청장 김성환
2010년 김포시장 유영록
2010년 밀양시장 엄용수
2014년 김포시장 유영록
2014년 금천구청장 차성수
2014년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지방의원

중랑 성백진
군포 정희시
동대문 장홍순



2018 지방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전략조사

- ARS / 전화면접조사
- FGI / 개방형 정책조사
- 광역단체 휴대전화조사
- 기초단체 가상번호조사

전략기획

- 경선전략
- 본선전략

홍보기획

- 슬로건 / 카피 / 스토리텔링
- 디자인 / 인쇄
- SNS 컨설팅

전략메시지

- 연설문 / 출마선언문
- 인터뷰 / 토론회

법률 회계자문

- 실전매뉴얼 / 선거법 특강
- 선거예산 컨설팅 / 회계책임자 실무교육

문자메시지 회원에게 드리는 특전

정치자금·선거비용 종합예산서 증정

◎ 문자메시지 전용 사이트 <http://pntsms.com>

〈VAT 별도〉

	단문 (90byte)	장문 (2,000byte)	멀티
리서치부	10	28	78
뿌리오	10.9	30	80



홍보물 제작은 100% 보전단가로

◎ 법정홍보물 제작단가

〈국산 스노우 기준/VAT 별도〉

매엽인쇄 (120g)	예비홍보물 선거공보	8P	30,000부	50,000부	75,000부	100,000부
			2,400,000	3,900,000	5,800,000	7,700,000
	선거공보	12P	50,000부	100,000부	150,000부	200,000부
			5,400,000	10,400,000	15,400,000	20,400,000

운전인쇄 (100g)	예비홍보물 선거공보	8P	30,000부	50,000부	75,000부	100,000부
			1,800,000	3,000,000	4,300,000	5,600,000
	선거공보	12P	50,000부	100,000부	150,000부	200,000부
			4,500,000	8,600,000	12,500,000	16,600,000

◎ CTI 전화홍보시스템

